



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인큐베이터 그린존 입주기업

그린존(Green Zone)에서 싹 틔운 성공의 씨앗

벤처 창업에서도 '첫 단추 끼우기'는 중요하다. 첫 단추 끼우는 법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벤처의 승패가 갈리기 마련이다. 벤처의 첫 단추는 사업 아이템과 함께 선배 벤처기업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얼마나 공유하는 지가 좌우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인큐베이터 그린존에 입주한 5개 기업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선배들의 실패와 성공 노하우를 접할 기회가 많은 이곳에서 푸른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 보자.

글_ 정유경 · 사진_ 김민정



타이밍으로 승부하는 유쾌한 레이싱 한 판 어떠세요? '도리게임즈'

도리게임즈(대표 김문욱)는 추억을 파는 벤처기업이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소재로 온라인 게임 '줄리타이밍'을 개발한 도리게임즈는 어릴 적 추억을 되살리며 그때의 기억을 불러온다. 콜로즈베타 단계인 이 게임은 내년 상반기에는 상용화가 되어 많은 이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구성원 모두가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 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하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다. 서로 도와가며 합심해가는 모습에서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그들의 진정성이 묻어난다. 3D 온라인 게임뿐 아니라 3D 휴대용 게임을 함께 개발하는 도리게임즈, 곧 게임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기업으로 부상할 도리게임즈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의 단골문제 해결사
'DGM 정보기술(주)'**

DGM정보기술(대표 권혁태, www.dgmit.com)은 중소기업이 흔히 겪는 자금, 인력, IT 기술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이다.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컴퓨터 과학 전공강의를 거쳐 중소기업 프로젝트 구축과 컨설팅 업무 경력을 쌓은 권혁태 대표는 많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을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해결한다. 고객사의 핵심 프로젝트 수립과 구축을 돕는 'Go&Structure'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책자금 컨설팅을 실시하며, IT교육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인재 채용을 돕고 있다. 현재 4개 사이트의 컨설팅 및 프로젝트 구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까지 관련 지식의 특허출원 3개와 S/W 등록 3개를 완료할 예정이다. '고객이 성공할 수 있을 때 회사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 고객사의 만족지수는 높아져 가고, DGM정보기술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
'(주)A&T Holdings'**

예비 창업가 대부분은 경기가 좋을 때 창업을 생각하지만 충분히 준비된 기업이라면 창업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벤처기업협회에서 창업강의를 듣고 시장에 대한 분석 단계를 거친 준비된 기업 A&T Holdings의 고경환 대표는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했던 때의 실패를 경험 삼

아 터득한 도전정신으로 콘텐츠 보안 분야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고만을 거쳐 만든 보안 모듈의 시제품은 테스트 중이며, 이번 달 중으로 실제 서비스가 가능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 제휴 마케팅 분야도 내년에는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보안 분야의 중요성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소중한 콘텐츠를 지키는 A&T Holdings의 미래는 고무적이다. 이제 완벽한 보안 모듈을 앞세우고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만 남았다.



**가능성을 깨닫는 안목으로 정상에 도전한다!
'바이너리웍스'**

바이너리웍스(대표 이창욱)는 IT컨설팅 및 IT 인프라 아웃소싱 전문회사를 목표로 설립된 벤처기업이다. 클라우드컴퓨팅과 IT 가상화 인프라(IaaS) 컨설팅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컨설팅, 구축,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회사 메릴린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2011년 시장 규모를 160bn로 예상했고, 미국 IT분야 리서치 전문업체 가트너는 2010년 10대 전략기술로 클라우드컴퓨팅을 꼽았다고 알려진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눈여겨 본 이창욱 대표는 현재 가상화 서버 인프라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마쳤고, 가상화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다. 오래전부터 벤처기업을 꿈꾸고, 우리나라가 북유럽과 미국보다 가상화에 대한 기술 도입이 늦어지는 점을 포착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바이너리웍스의 이창욱 대표. 그가 꿈꾸는 글로벌 IT기업으로의 도약은 지금부터다.

**기업에서 필요한 소비자의
선택을 알려드립니다**

'Wiseman'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사업 아이템으로 결정한 벤처인이 있다. 온라인 Pool 생성사이트를 만든 Wiseman의 장인하 대표다. 장 대표는 기업이 소비자의 반응이나 선택을 알고 싶으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 방법이나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 착안해 온라인에서 쉽게 투표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나 통계를 볼 수 있는 WisePoll을 개발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마지막 점검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이번 달 안으로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공과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당당한 포부를 밝히는 장인하 대표. 어느 때보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그에게서 믿음직한 젊은 벤처인의 패기가 느껴진다.

